

남자 수구, 최종전서 '유종의 미'...사상 첫 승



광주세계수영대회 15·16위 순위결정전서 승부던지기 끝에 뉴질랜드 꺾고 '1승' 달성

한국 남자 수구 대표팀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사상 첫 승을 수확했다.

대표팀은 23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뉴질랜드와의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수구 15·16위 순위결정전에서 승부던지기 끝에 17-16(3-3 2-2 4-5 3-2 5-4)으로 승리했다.

한국 남자 수구의 세계선수권대회 사상 첫 승이다. 한국은 최종 15위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세계선수권대회에 처음 나선 한국은 조별예선 3경기를 포함해 앞서 치른 4경기에서 모두 졌다.

대표팀 구성 자체가 처음인 여자 수구와 달리 남자 수구는 전문 수구 선수로만 이뤄졌다. 그러나 개최국 자격으로 처음 세계선수권대회에 나선 한국에 세계의 벽은 높았다.

대표팀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딴 적이 있는 세계적인 강호들을 상대한 A조 조별예선에서 3전 전패를 당했다. 그리스에 3-26(0-7 0-7 1-3 2-9)로 세르비아에 2-22(1-6 0-5 1-4 0-7)로 패배한 한국은 몬테네그로에도 6-24(1-6 1-4 1-8 3-6)로 대패했다.

13-16위 순위결정전으로 밀린 대표팀은 조별예선 상대보다는 한층 수월한 카자흐스탄을 만났지만, 역시 4-17(1-4 2-4 0-7 1-2)로 졌다.

아시아의 강호도 한국에는 버거운 상대였다.

이번 대회 목표를 '1승'으로 잡았던 대표팀은 이번 대회 마지막 경기인 15·16위 결정전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목표 달성을 노렸다. 뉴질랜드는 조별예선 3경기에서 1무 2패를 기록해 13-16위 결정전으로 밀렸고, 브라질에 8-12로 저 한국과 맞붙게 됐다.

뉴질랜드도 쉬운 상대는 아니었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최고 성적은 15위에 불과하지만, 이번이 7번째 출전이다. 뉴질랜드는 2013년 바르셀로나 대회 이후 6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무대를 밟았다.

하지만 대표팀은 경기 내내 뉴질랜드와 팽팽히 맞서며 첫 승 기대를 키웠고, 간절했던 '1승'이라는 목표를 이뤄냈다.

전반부터 대등한 흐름이 이어졌다.

한국은 경기 시작 57초 만에 김동혁(경기도청)이 선제골을 터뜨려 기분 좋게 출발했다. 김동혁이 골문 정면에서 던진 슈팅이 골문 오른쪽 구석에 꽂혔다.

약 30초가 흐른 뒤 매튜 루이스에 동점골을 헌납한 한국은 루이스 클락에 역전골까지 내줬지만 1쿼터 종료 4분53초를 남기고 이성규(한국체대)가 상대 진영 왼쪽 측면에서 대각선으로 던진 슈팅이 상대의 골망을 흔들면서 다시 2-2로 따라붙었다.

뉴질랜드가 클락의 골로 다시 리드를 가져갔지만, 한국은 1쿼터 1분

34초 전 터진 송재훈의 골로 다시 3-3 동점을 만들었다.

한국은 2쿼터 시작 1분49초가 흐른 뒤 이선욱(경기도청)이 골을 넣어 4-3으로 다시 앞섰다.

골키퍼 이진우(한국체대)가 수차례 슈퍼세이브를 선보여 리드를 지키던 한국은 2쿼터 중반 동점을 허용했지만, 전반 종료 3분24초를 남기고 권대용이 오른쪽 측면에서 날린 슈팅이 골문을 통과하면서 다시 5-4로 리드를 가져왔다.

하지만 뉴질랜드는 2쿼터 종료 1분21초 전 선 뉴팜가 골을 터뜨리면서 다시 5-5로 따라붙었다.

앞선 경기에서 3쿼터에 약한 모습을 보이던 한국은 이날은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 3쿼터 시작 26초 만에 권영균(강원도수영연맹)의 골로 기세를 끌어올렸다. 권영균이 멀리서 가볍게 던진 슈팅이 뉴질랜드 골키퍼 머리 위를 통과해 골문에 안착했다.

선 브라이언트에 동점골을 내줬던 한국은 3쿼터 중반 김문수(경기도청)가 오른쪽 측면에서 날린 강한 슈팅이 상대 골문을 통과하면서 다시 리드를 잡았다. 7-7로 맞선 3쿼터 종료 3분46초 전에는 이성규(한국체대)가 페널티스로 성공해 리드를 빼앗았다.

내리 두 골을 내주며 역전당했던 한국은 3쿼터 종료 47초를 남기고 권대영이 동점골을 성공했다.

17초 만에 역전골을 허용해 9-10으로 뒤진 3쿼터를 끝낸 한국은 4



23일 오전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남자 수구 대한민국-뉴질랜드의 15-16위 순위결정전 경기, 한국 대표팀이 승리를 거두자 기뻐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경기는 12-12(3-3 2-2 4-5 3-2)로 비겨, 페널티슛(5-4)로 이기며 15위를 기록했다.

쿼터 시작 3분12초가 지난 뒤 루이스에 골을 헌납해 2점차로 뒤졌다.

그러나 4쿼터 중반 권영균이 오른쪽 측면에서 던진 강한 슈팅이 골키퍼의 손을 스치고 골망을 흔들면서 10-11로 추격했다.

한국은 4쿼터 종료 3분19초를 남기고 이선욱(경기도청)이 골문 정면에서 날린 강한 슈팅이 골대를 맞고 골문 안으로 들어가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4쿼터 종료 1분30초를 남기고 선 뉴팜에 역전골을 허용해 11-12로 뒤졌던 한국은 경기 종료 32초전 권

영균이 극적인 동점골을 넣어 다시 12-12로 맞섰다.

경기 종료 직전 루이스가 문전에서 좋은 슈팅 기회를 잡았으나 이진우가 슈퍼세이브로 차단했다.

결국 양 팀은 승부를 가리지 못한 채 승부던지기에 돌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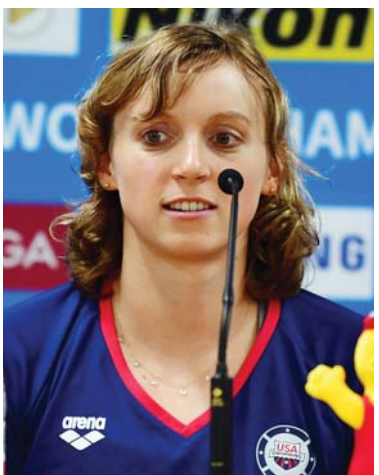
루이스와 이선욱이 나란히 첫 골을 성공한 가운데 이진우가 니콜라스 스타코비치의 골을 막아내 승리 기대를 부풀렸다.

이어 이성규가 골을 성공하면서 한국은 2-1로 앞섰다. 한국은 추민종(전남수영연맹), 한효민(한국체

대), 권영균이 차례로 골을 성공하면서 리드를 지켜 그대로 이겼다.

한국은 승부던지기를 제외하고 슈팅 27개를 시도해 12개를 성공했다. 권영균이 5개의 슈팅을 시도해 가장 많은 세 골을 넣었고 이선욱과 권대용, 이성규가 두 골씩을 터뜨렸다. 골키퍼 정병영(한국체대)과 이진우는 각각 6개, 4개의 세이브를 성공했다.

뉴질랜드는 33개의 슈팅을 시도해 12골을 넣었다. 루이스와 클락은 각각 4골, 3골을 몰아넣었으나 뉴질랜드에 첫 승을 안기지는 못했다.



'건강 이상' 레데키, 자유형 200m·1500m 기권

17일 광주 입성 후 계속 컨디션 관리 어려움 겪어

미국 수영 여제 케이티 레데키(22·미국)의 다관왕 도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레데키는 23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자유형 200m 예선에 불참했다. 7조

5번 레인에서 역영을 펼칠 예정이었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레데키는 이날 오후 진행될 자유형 1500m 결승 출전도 포기했다.

이유는 건강 이상이다.

레데키는 지난 17일 광주에 입성 한 이후 계속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

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촌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은 레데키는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레데키를 지도하고 있는 그렉 미한 코치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 레데키의 상태가 좋지 않았다. 그녀가 이번 주 다시 레이스를 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한 코치는 레데키의 기권이 자유형 400m 4연패 무산과는 무

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레데키는 지난 21일 여자 자유형 400m에서 아리안 티트머스(19·호주)에게 밀려 은메달에 그쳤다.

2013년 바르셀로나, 2015년 카잔, 2017년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연거푸 이 종목 금메달을 거머쥐었지만 이번에는 승리의 여신이 레데키를 외면했다.

당시 레데키는 350m 구간을 선두로 통과했지만 마지막 50m에서 급격히 페이스가 떨어져 역전을 허용했다.

미한 코치는 "그때 어려움을 겪

은 것이 일종의 신호였던 것 같다. 어제 1500m 예선에서도 마지막 3분의 1은 정말 힘들어했다"고 우려했다.

3개 개인 종목(자유형 400m·800m·1500m)에서 4연패를 노렸던 레데키의 도전은 자유형 800m만을 남겨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다. 자유형 800m 예선은 26일에 열린다.

미한 코치는 "레데키가 좋은 위치에 있었기에 마음이 아프다"고 안타까워했다.

뉴스

강정호, 10호 홈런 작렬...타율 낮아도 장타로 무력시위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의 강정호(32)가 시즌 열 번째 아치를 그렸다. 23일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PNC파크에서 열린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 교체 출장. 2타수 1안타 1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179에서 0.184로 올랐다.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된 강정호는 8회말 1사 후 윌런 모란의 대타로 타석에 섰다. 하지만 타일러 웬과 폴카우트 승부 끝에 삼진으로 물러났다.

승부가 연장으로 이어지면서 다시 기회가 왔다. 팀이 3-6으로 뒤진 연장 10회 무사 2루에서 카디널스의 6번째 투수 카를로스 마르티네즈를 상대했다. 강정호는 마르티네즈의 초구 91.7마일(약 147.5km) 투심 패스트볼을 공략해 그대로 왼쪽 담장을 넘겼다. 14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6경기 만에 나온 시즌 10호포다.

백리코 데뷔 첫 해인 2015년 15홈런, 이듬해 21홈런을 날린 강정호는 3년 만에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2016년 말 음주운전 사고를 낸 여파로 2017시즌을 통으로 쉬었고, 2018년에는 막판 3경기만 뛰었다.

힘겨운 시즌을 치러가고 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주전 3루수 경쟁에서 앞섰지만 타격감을 끌어 올리지 못하면서 뒤로 밀려났다. 그 사이 경쟁자 모란은 방향이 틀어지며 자리를 넓혀갔다.

하지만 들쭉날쭉한 경기 출전에도 강정호는 자신의 장점인 장타를 앞세워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7월 14경기에서 4개의 홈런을 수확했고, 2루타도 3개를 기록했다.

한편, 피츠버그는 강정호의 홈런으로 단숨에 5-6까지 추격했지만, 더 이상의 추가점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대로 졌다.

일본언론 "김승규, 울산 복귀할듯"

구단은 "상황 파악중"

일본 프로축구 J1리그(1부리그) 빗셀 고베의 국가대표 수문장 김승규(29)가 친정팀 울산 현대에 복귀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구단은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데일리스포츠는 23일 "김승규가 K리그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울산 등 여러 클럽에서 오퍼가 온 상황"이라고 전했다. "K리그 이적 시장은 26일까지라 거취에 대한 빠른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은 김승규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클럽이다. 울산 유소년 팀인 현 대중과 현대고를 거쳐 2006년 울산과 프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2015년까지 10시즌 동안 112경기를 뛰었다.

2016년 고베로 이적한 이후 줄곧 주전으로 활약했지만, 이번 시즌엔 출장수가 급격히 줄었다. 12경기 출장에 그치고 있다.

경기당 최대 5명을 기용할 수 있는 외국인쿼터 제도가 영향을 미쳤다. 고베가 루카스 포돌스키, 안드레스 이니에스타, 데이비드 비야, 세르지 샴페르, 웰링턴 등 거물급 외국인선수를 영입하면서 불뿔이 튀었다.



여기에 고베가 레버는 국가대표 출신 수비수인 조안 오마리 영입에 뛰어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J리그는 외국인 보유 제한이 없다.

울산 측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울산 관계자는 뉴스와 통화에서 "김승규가 고베에서 출장수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울산 출신 선수이기 때문에 관심은 늘 가지고 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은 이번 시즌 오승환에게 골문을 맡기고 있다. 21경기 16실점으로 K리그 12팀 가운데 최소 실점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드래곤즈 수비력 강화 위해 최준기 영입

전남드래곤즈(사장 조창평)가 후반기 수비력 강화를 위해 성남으로부터 최준기 선수를 영입했다.

최준기 선수(DF, 1994년생)는 보인고 연세대를 거쳐 2017년 일본 J2리그의 자스과 쿠사츠 군마에 입단하여 데뷔 첫 해 21경기를 소화했다.

2018년에는 성남 이적을 통해 K리그에서 활약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K리그 통산 22경기에 출전하며 센터백으로서 맹활약중이다.

또한 연령별 대표를 거친 최준기 선수는 180cm, 77kg로 큰 키는 아니지만 빠른 판단력을 통한 위치 선정이

뛰어나고 자신감 넘치는 플레이로 상대 공격수를 힘들게 하는 스타일이다.

전남은 바이오, 윤용호, 이후권에 이어 즉시 전력감인 최준기 선수의 합류로 수비 안정화에 따른 팀 전력의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 유니폼을 입은 최준기 선수는 "최근 전남은 부진이 빈번에 성공했다고 본다. 전남의 목표 달성을 위해 남은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최



선을 다하겠다"고 입단 소감을 밝혔다. 광양-김승호 기자